헐리우드에 '세계유산 백제' 소개

충남도가 헐리우드에 '세계유산 백제'를 소개, 영화 촬영지로 선택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10월 21일 미국 로케이션 메니저 조합(LMGA, Location Managers Guild of America) 회원을 대상으로 부여와 서천지역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LMGA는 헐리우드 영화 촬영지 섭외를 담당하는 제작팀원과 로케이션 전문 업체, 촬영지와 연계된 회사나 기관 등을 주요 회원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된 비영리 전문기관이다.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LMGA 회원은 모두 8명으로, 영화 '트랜스포머'와 '미션 임파서블', '스파이더맨', '인디아나 존스', '캐리비안 해적', '배트맨', '터미네이터' 등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지 섭외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매니저들이다.

이들은 이날 서천 옛 장항제련소와 인근 폐가, 송림해변 및 스카이워크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서천에 이어 부여로 이동한 LMGA 회원들은 백제문화단지와 세계유산에 등재된 정림사지, 궁남지 등을 차례로 방문, 영화 촬영지로써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팸투어 이틀째인 22일에는 예산 증실농원으로 이동, 과일 따기 체험과 사과와인 시음 등을 했다.

도 관계자는 "LMGA 회원들은 헐리우드 영화 촬영지 섭외 및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번 팸투어는 한국영상위원회가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 유치를 위해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 로케이션 스카우팅·헌팅 업무 담당 매니저를 우리나라로 초청하며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1세기는 영상과 콘텐츠의 시대인 만큼, 충남을 배경으로 한 영상 콘텐츠가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9월 11~12일과 17~19일 한국영화감독조합, 영화프로듀서조합, 제작가협회 등 국내 유명 영화·드라마 관계자를 초청, 팸투어를 가졌다.

각 팸투어는 부여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등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여·공주 백제역사유적지구, 태안 해안국립공원 절경, 신두리 사구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 7월 출범한 충남영상위원회 등을 통해 도내 로케이션 데이터를 구축,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등 영상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이 또다시 인정한 '충남도 행정혁신'

충남도가 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행정혁신' 이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도는 행정자치부 등이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에서 '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 조직 내 보편적 지식으로 공유·활용토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 행정 및 민간·공공 기관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이다.

도는 지난해 지식대상 '대상' 을 차지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 2013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식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충남도가 유일하다.

도의 이번 '우수상' 수상 기관 선정은 '제로-100 프로젝트' 기반 지식행정 체계 구축을 통한 정부3.0 가치 실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로-100 프로젝트' 는 '업무누수 제로(0), 정보는 100% 공개하자' 는 의미로, '투명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식행정 인식 제고를 위한 독서대학과 혁신대학, 직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고 있는 '무기명 토론방' 및 '무기명 단체채팅방' , 문제 해결형 지식동아리 운영, 전국 최초 '협업포인트제' 도입, 부서별로 분할된 업무 추진 방식을 개선한 '협업과제' 추진 등 행정혁신에 따른 각종 사업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는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이끄는 충남도정을 만들기 위해 행정혁신을 중점 추진해 왔다" 며 "2013년 지식대상 우수상과 지난해 대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 기관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의 행정혁신 성과를 또 다시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식대상에는 중앙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33개 기관이 응모했으며,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19개 수상 기관이 최종 결정됐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사상 첫 유치 성공

충남도가 국내 최고 해양스포츠 축제인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에 사상 처음으로 성공했다.

도는 11월 5일 열린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에서 경북과 강원도를 제치고 오는 2017년 열리는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해양스포츠 대회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한다.

그동안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경북도가 3차례, 경남과 전남도가 각각 2차례 개최했으며,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전장을 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2017년 충남 대회는 8월 중 4일 동안 보령 요트

경기장과 대천해수욕장 일원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경기 종목은 요트와 카누, 트라이애슬론, 수중핀 수영 등 18개로,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 등 모두 5만여 명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보령지역에 미치는 유무형의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 유치는 도와 보령시, 도체육회, 해양스포츠 가맹경기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후보지 현장실사 등에 대응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도정 주요 정책 방향인 '해양건도 충남' 실천 의지를 전달하고, 해양스포츠의 불모지인 충남에서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맹부영 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를 위해 성원해 주신 도민과 체육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보령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보령시가 충남 서해안의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보령시는 2017년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내년 7월 '제5회 해양수산부장관배 국제요트대회'와 10월 '제97회 전국체전 요트대회'를 개최한 뒤, 경기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서해안을 '레포츠 드림 라인'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중점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중심으로 10개의 마리나 항을 건설하고, 한·중·일을 연계하는 동아시아 해양레저 중심이 선다는 계획이다.

"서산비행장 민간공항 항공수요 충분"

충남도가 환황해권 경제 시대를 맞아 도내 서해안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를 추진한다.

도는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제식(서산·태안),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공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를 위한 항공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항공대학교 김병종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공주대학교 이선하 교수가 '서산비행장 민간공항 개발방안', 한서대학교 김웅이 교수가 '국내외 항공여건 분석 및 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했다.

김제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산의 지리적 접근성과 중국의 비약적 발전, 저가항공사의 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서산비행장 공항개발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를 통해 서해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관광수요 창출과 함께 서산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국내 제일의 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의원은 "도내 서북부지역은 기간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과 경제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라며 "여기에 지난 7월 공주·부여지역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일본·중국 등 국제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서산비행장의 민항기 취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공주대 이선하 교수는 서산비행장의 2020년 장래 이용객 수요는 국내선 47만 명, 국제선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향후 내륙노선 4개(김해, 제주, 울릉도, 흑산도)와 국제노선(중국) 2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한서대 김웅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타당성으로 ▲해미 공군비행장의 활주로 등 기존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사업비 절감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잠재적 수요 존재 ▲LCC(저가항공사) 기반 다양한 국제노선 개발 및 중소형기 이용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올해 말 수립이 완료되는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 민항유치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외에도 토론에서는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를 전제로 국내·외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등 지방공항의 적자운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도 관계자는 "한-중 FTA를 맞아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는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비행장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현 도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나웅진 공항정책과장, 이완섭 서산시장, 한국공항공사 박담용 안전시설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김제철 항공교통연구본부장, 충남연구원 김원철 책임연구원, 대한항공 김승복 상무, 아시아나항공 진일남 상무, 제주항공 송주석 영업기획부장, 진에어 이광 경영지원본부장, 티웨이항공 최수영 이사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모델 국제워크숍” 개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중심으로 한 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CNI)과 오영식 국회의원실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모델 국제워크숍”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일본 메이죠 대학의 이수철 교수는 “2012년도 일본의 발전차액제도(FIT) 도입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만 시행되던 이전에 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출현과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행 RPS제도 아래에서는 지역형 소규모 재생에너지 비즈니스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CTI PFAN(CTI Private Financing Advisory Network)의 ‘피터 스토레이(Peter

Storey)'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계획의 장애요인은 바로 자본"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하의 민관 협의체와 같이 프로젝트와 투자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청정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속가능센터 '지우'의 김은경 대표를 좌장으로 동국대 박진희 교수, 전북대 이성호 교수, 충남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노상양 소장 등이 열띤 토론시간을 갖기도 했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대형에너지 사업자 위주의 RPS제도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연구원은 충남도, 에너지공급자, 정책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친환경, 지역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연구와 정책지원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 워크숍은 충남연구원 제11차 충남미래연구포럼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충남연구원, 박광국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장 초청 특강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1월 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이하 'KEI') 박광국 원장을 초청해 '환경문제-KEI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에서 박 원장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와 관련 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KEI의 주요 활동 및 미래과제를 소개했다. 또한 충남연구원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박광국 원장(1959년 대구 출생)은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전국 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도 재직 중이고, 저서로는 '현대 환경문제의 재인식'(한울아카데미, 공저),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 거버넌스(대영문화사, 공저) 등 다수가 있다.

충남연구원, 대전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 체결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과 대전지방기상청(청장 임용한)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특화산업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11일 체결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충남지역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개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유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충청남도 미래 유망산업 발굴 ▲기후변화 및 기후서비스 관련 학술연구,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담고 있다.

강현수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맡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역할이 강화될 것" 이라며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를 활용한 연구사업과 기상산업 육성 등 도민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분야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